



『아시아리뷰』 창간호에 부쳐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 연구의 글로벌허브를 지향하며 창설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전문학술지 『아시아리뷰』를 창간하고 그 첫 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한국이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를 대비하여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이 목적에 걸맞게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선도국,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 이바지하고 학제적 지식창출 및 국제협력 확대를 도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연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함과 동시에 각종 출판활동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관련분야로 확산시켜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수차례의 크고 작은 국제학술회의와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특강, 연구발표회 시리즈 등을 기획하여 정례화하고 있다. 출판영역에서도 전문포털 구축을 비롯하여 국·영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그간의 활동 결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연구와 교육 효과를 확산시키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논문 발간, 기초분야 및 정책연구 모노그래프 시리즈 발간, 국·영문 전문저서 출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종 연구결과물을 출판물 형태로 축적해 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가고 있다.

『아시아리뷰』는 아시아에 관한 지역연구와 주제연구를 포괄하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종합발전을 선도할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며 출범한다. 당장에는 연 2회 발행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참신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진작시키는 정기 계간 학술지로 키워 나갈 것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아시아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아시아 연구의 개념과 쟁점을 다루어 보는 창간기념 특별 기고논문 2편을 실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주제 연구의 경향과 쟁점을 다룬 4편의 연구논문과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아시아의 지리학 연구경향에 관한 2편의 논문을 각각 게재하였다.

특별기고 논문으로는 아시아 연구의 미래 지향을 위한 정체성 수립 및 회복 문제를 각각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탐구영역의 핵심과제로 접근하는 두 원로 교수의 논고를 실었다. 하나는 김우창 교수의 “정신인간학과 인간이해의 여러 차원: 근대와 아시아적 전통”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경동 교수의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 의식”이다. 이 두 편의 특별기고 논문에 함의된 아시아의 정체성 탐구에 대한 시각과 제안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다.

김우창 교수는 세계화의 충격과 다문화주의의 사례를 들어 현대학문이 인간의 사회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그 ‘정신적 존재방식’을 보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가늠할 새 인식 지평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시아 인문학 연구자들이 매진해야 할 소명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인간의 정신적 존재방식을 연구하는 ‘정신(精神)인간학’(또는 정신인류학)을 제안하면서 김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본문 34쪽):

(정신인간학)은 선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정신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그것을 어떤 하나의 초월적 원리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통에서 드러나는 정신의 다양한 이해 그리고 여러 다른 종류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신성 등을 통해 비교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게 될 인간 정신의 깊이에 대한 인식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인간이 부딪치는 문제를 폭 넓게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우창 교수의 정신인간학이 현대학문과 아시아 연구의 정체성 회복 문제에 던지는 함의는 문화와 인식체계를 둘러싼 서구중심 관점과 해석에 대한 반성적 노력과 비판적 시각을 촉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보편타당한 인식체계로 간주되어 왔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배우고 재생산하며, 그 길을 뒤따라 문화의 틀을 합리적으로 재

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대의 (서구편향적) 학문은 전통적 인간 존재의 지평에 대한 이해를 상실하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창 교수는 우리들이 전통적인 인간이해에서 교훈을 찾아나서야 할 때에 이르렀으며, 서양과 다른 문화들을 잊지 않으면서도, 인간 존재에 대한 다차원의 이해와 통찰을 제공해주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해석학적 재론과 서구문명에 대한 비판적 교훈 찾기 운동을 권고한다.

아시아 문화와 전통적 인간학의 통찰은 현대 서구지성을 지배하는 학문 속에서 잊혀지고 묻혀 있는 인간존재, 즉 “근대의 정치 현실주의 인간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인간존재”의 부분들을 드러내 보이고 객관화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세계에는 고대의 인간학, 그리고 아시아의 인간이해가 바탕으로 깔고 있는 근원적인 인간상, 즉 정신적 차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 아시아의 전통적 ‘앎’과 ‘삶’의 기록과 기억에 대한 새로운 비교 해석학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보편적 인간 인식을 위한 대안적 지평을 열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¹

김우창 교수가 주장하듯 아시아적 전통을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고 재해석하는 일은 아시아 연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시아 연구에 대한 주제탐구와 방법론의 토착화 및 독창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동 교수의 논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짚어본다.

김경동 교수는 ‘신문명 시대의 도래’와 ‘아시아의 21세기’를 내다보며 아시아와 아시아인의 역할에 대한 서방세계의 인식과 아시아인의 자아정체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아시아의 과제를 근대화 모델을 따라가며,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김경동 교수가 살펴본 아시아의 자아상은 서방의 눈에 비친 아시아관을 수용하여 후진적 특성과 자기 부정적, 자기 비판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 후

¹ 이러한 관점에서 김우창 교수는 본문 속에서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앎과 삶에 대한 ‘사트와’적 이해와 유교의 ‘예(禮)’에 깃들여 있는 인간이해와 행동양식을 언급하며 이것들은 “인간을 생존경쟁 속에 있는 동물 또는 기계에 비유하는” (자연)과학적 인간관이나 “상충하는 이익의 원자로서의 개체들이 사회계약을 맺어서야 비로소 ... 질서를 찾는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도 구분한다. 김우창 교수는 힌두교 경전이나 유교의 인간이해는 서방의 권리 담론이 빠뜨리고 있는 인간 존재의 보다 높은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서방지성의 아시아관에 대한 변화와 자기성찰을 거치면서 근대화 성공한 아시아에 대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아시아 내부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자기정체의 모습도 근대화 초기의 자기 부정, 자기 비판적 태도로부터 자기 주장을 펼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 김경동 교수는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시아의 다양성, 아시아 자체의 내재적 아시아 이해, 아시아의 대안적 담론의 성격에 대한 성찰, 21세기 지구적 무대에서 아시아의 역할과 자기정체의식,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근대성의 역사를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김경동 교수는 근대화가 르네상스의 요람에서 출발하여 유럽에서 북아메리카의 미국을 거쳐, 그 중심축이 유럽과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계속 아시아로 이동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이 아시아 근대성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6~18세기 간에 서구의 근대화와 상승이 전 세계를 변용시켰다면 아시아와 특히, 중국의 역동적 근대화와 상승도 그와 같이 의미 있는 변혁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세계질서의 평화적 변용과 인류의 공통이익에 기여하는 강대국이 될 것인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차제에 그것이 세계와 아시아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장 아시아 연구자들에게 아시아는 무엇인가를 재론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접근하는데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자기정체의식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임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김경동 교수는 보고 있다. 그의 조망은 차제에 아시아 연구가 어떤 연구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연구 범위, 주제, 방법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회과학 측면에서 본 지성사의 궤적을 예시해 준다. 앞으로 우리는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확고한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담론을 탐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시아의 모습과 그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이론 구성은 아시아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서구지성의 지식기반을 수용한 것이거나, 서구사회를 모방하여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에 습득된 것들이다. 따라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온 급속형 근대화와 이종교배형 문화접변

과정에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약점과 부작용에 대하여 내적 성찰(內省)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복합적인 이데올로기적 주장과 맞물리며 그 모습이 착색되거나 지적 구성 내용이 경도되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보다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이해수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인도, 동남아시아, 아랍권 아시아 등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주변적 관심권에 있는 아시아권 나라들에 대한 연구는 수준과 경향을 조사, 평가하기 전에 연구 축적 기반이 미약하여 의미있는 분석이 더욱 미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독자들은 창간호에 실린 기획논문들에서 이들, 특히, 비인가지역 아시아 국가군에 대한 연구의 실상과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지은의 “남아시아연구 리뷰: 현황과 과제”, 엄한진의 “아랍세계 논의의 특징과 오리엔탈리즘적 전통”, 오명석의 “동남아 이슬람의 쟁점: 이슬람과 현대성”, 박번순의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등은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 분야의 모습을 이해하고, 연구 현황과 경향, 연구 발전 과제와 진흥 방안에 대한 제안들을 다룬다.

끝으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학계와 지성계의 아시아 관련 정책담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소개하는 박승우 교수의 논문을 창간호에 신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박승우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소개된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분야에 걸친 저술과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쟁점별로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적 분류작업을 통해 연구현황을 검토·비교·정리하고,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서지 안내와 연구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각 유형별로 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및 주요 쟁점을 비교하고, 이들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도 검토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분과학문의 경계 내에 머물러 있던 동아시아 담론들 사이에,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향적이고 역동적인 학문적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원의 “근현대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새로운 의제들”은 근현대 지리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리학이 아시아에 대해 연구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의제들을 검토·제시한다.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에는 리히트호펜의 중국 연구, ‘그레이트 게임’과 ‘로프노르 논쟁’, 지정학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지리학은 열강의 지정학적 쟁탈전을 배경으로 등장·발전했다. 냉전기의 지리학은 과학화를 강조하여 지역지리학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탈냉전 시기에 지리학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가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국가군에 대한 지역지리 서술과 지정학적 및 환경론적 주제들에 관심을 더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창간호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산물이다. 무엇보다도 창간 특집의 취지에 맞게 원고를 작성해 준 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리뷰』 발간을 위한 학술회의를 2011년 5월에 개최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학술회의에서 사회, 발표, 토론에 응해준 선생님들과 자리를 빛내준 청중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아시아리뷰』 발간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임현진 소장을 포함한 아시아연구소 구성원들의 도움도 컸다. 『아시아리뷰』는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국내외 아시아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하고자 첫발을 내딛었다. 아시아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격려와 질정을 바란다.

2011년 6월